

대림 제 2 주일  
인권 주일

# 숲 정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요한 1,3).

기도서 211면 (B해)  
제1독서 : 이 사 40,1-6.9-11  
제2독서 : 2 베르 3,8-14  
복 음 : 마 르 1,1-8

### 강론



## 제자리 찾기 운동

양 경 배 신부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서 떠나 있던 인권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기에 슬하게 짓눌려 오기만 하던 우리 주변의 소외당한 이들에게 요즘의 관심과 사랑(?)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애써 지으려는 미소와 선물꾸러미가 줄을 짓고 있다. 너무도 뜻밖의 일하기에 우리는 자기 앞에 큰 떡 놓기 위한 선거 열풍의 결과임을 알아차린다. 따라서 요즘같이 인권이 제 자리를 찾을 것 같으면 3개월 주기로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심쓰는 그들에게 어떤 코메디언의 말대로 ‘있을 때 잘해’가 아닌 ‘평소에 잘해’라고 말해 주고 싶다.

오늘은 인권주일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창세 1,20-27) 사실에서 기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을 창조리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는 바로 하나님을 짓밟는 것과 같다.

오늘의 우리 세상은 사실 ‘인권’이란 단어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 보자. 학생은 학교에서, 근로자는 공장에서, 정치인은 정치 현장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각자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근로자는 거리와 감옥에 나가 있고, 정치인은 자리를 빼앗겨 뒷전에 물러나 있고, 군인은 정치판에서 총 대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삐뚤어지기만 하고 결국 변칙과 횡포가 최고인 양 고개를 들고 있다. 폐지가 안방에 있고 사람이 폐지우리에 있으면 천하의 꼴불견이고 비극이다. 따라서 인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에서부터의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코트의 첫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래까지 틀어지는 것이기에 첫번 단추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아래는 일사천리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오늘의 복음 말씀 중 “회개하라”는 말씀도 결국은 제자리 찾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사명을 이행할 때 하나님과 나는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현 위치를 확인해 보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대림 제2주일을 지내고 있다.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노래하기에 앞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왜냐하면 오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냐?” (고산분당 주임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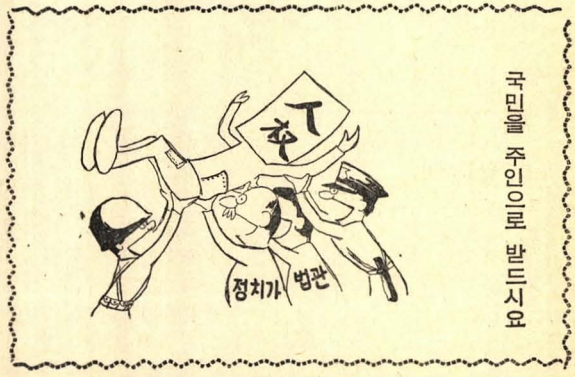
## 공정선거 감시단

우리 전주교구에도 「민주쟁취 천주교 공동위원회 공정선거 감시단」이라는 긴 이름의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지원하는데 큰 결단을 내린 사제총회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러한 기구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제단의 이 결정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다.

우리의 정치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이번에 있을 대통령 선거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된다.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 내용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선거운동에 공무원이나 통반장들이 상당히(24.2%) 개입되어 있다고 보거나, 개입되어 있는 편(33.4%)이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중에서 선거와 관련해 관광을 가거나 금품 또는 음식을 대접받은 적이 있다.(33.4%)” “대통령 후보 유세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가 불공정한 편(44.7%)이거나 아주 불공정(15%)하다.”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독재정권이 무너지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가 「남프렐」이다. 자유선거를 위한 전국 시민운동(NAMFREL)이 바로 그것이다. 남프렐은 필리핀의 종교계, 학계, 실업계,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는 물론 노동자, 농민, 부녀자들에 이르기까지 온 시민의 참가와 성원을 받았다. 이 시민운동에 가톨릭 방송국인 라디오 베리마스의 신속한 보도가 필리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만 것이다. 우리는 필리핀과의 여건이 아주 다르지만, 그래도 개신교측과 천주교측에 공정선거 감시단이 조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그냥 지켜보지만 말고, 각자의 처지에서 한 몫씩을 해내야 하겠다.

## 숲 정 이 산책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시오

### 천호성지 교구 공원묘지 분양

천호성지에 교구 성직자 및 교우들을 위한 공원묘지가 조성된다.

교구에서는 교구 공원화 묘지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에 관한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 끝에 천호성지에 공원묘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미 관계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묘지 조성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허가를 받은 교회 공원묘지 장소가 성인들과 순교자들이 모셔진 천호성지에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을 신앙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성인들과 함께 부활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번 교구 사제 평의회에서는 현재 치명자산에 있는 성직자 묘지의, 제2의 성직자 묘지를 천호에 함께 조성키로 결정, 천호성지 공원묘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공원묘지가 허가되기까지는 교구 평협(평신도 사

도적 협의회)의 임원들의 노고가 컸다. 그동안 각 교구의 공원묘지를 실제 답사함은 물론,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얻기까지 동분서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이제 진입로 개설 및 기본설계에 따라, 명년 4월까지 묘역 조성을 완수하고, 5월 1일부터 안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알려겠지만 묘지 분양은 개인, 혹은 가족묘지(본인, 형제, 부모, 조부모 교우)로 하되, 1구당 10만원(공원묘지 조성비, 묘지비)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신청자가 분담케 된다.

분양 신청은 금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일차 분양 1,000구에 한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묘지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묘지 분양 신청은 교구청 묘지 관리실에(전주 85-0041) 연락바란다.

—전주교구 공원묘지 추진위원회—

### 「민주화를 위해 우리 모두 깨어 있자」

16년만에 치루는 대통령 직접선거가 열흘 남았다. 이번 선거는 이땅에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태는 또다시 우리에게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려 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군부독재의 연장으로 우리의 역사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위 6·29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 당사자가 관훈클럽에서나 광주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에의 항복”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위대한 결단이 아니다. 말장난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위 6·29선언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그것은 겨우 대통령 직접선거 하나로 그 명백을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실 지난 6월의 우리의 역사는 위대한 “시민혁명”이 아닐 수 없다. 이의 결과로 빚어진 소위 6·29선언은 국민에의 항복선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6월이 있기 까지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질곡에서 신음하며 지내왔다. 5·16군사 쿠데타 이후의 군부독재는 10월유신, 그리고 12·12사태와 광주사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동안 슬한 민주인사가 옥고를 치루었고,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

리로 내쫓겼다. 그뿐만 아니라 몇몇 젊은이들은 민주화의 제물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다.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뜨겁게 달아오른 선거의 열기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금권선거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당원이 되는 과정부터 유세장에 동원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당을 받고 유세장에 나가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다는 말인가? 부재자 투표제도는 또 어떠한가? 무려 85만표가 참관인 없는 선거를 하고 있으니, 이 또한 부정선거의 온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필리핀에서 처럼 민간인 선거 감시 운동을 통해서만 그 보완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쟁취 천주교 공동위원회 공정선거 감시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 나라의 역사를 책임질 수 없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에 수긍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흔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타락행위가 용서받을 수는 있어도, 그러한 인물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해 항상 깨어 있자.

**성심유치원**  
**88학년도 원아모집**  
 1. 모집인원 : 120명  
 2. 지원자격 : 만3세~5세의 건강한 어린이  
 3. 원서배부 및 접수 : 87.12.6일부터 선착순 마감(오전 10시~5시) 일요일 제외  
 문의 : 성심유치원 (84-8347)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골베)  
 위치 : 대학교앞 덕진성당옆  
 주소 :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국민은행 온라인 : 509-21-0049-517  
 ☎ 72-2665·75-3533

**숙미가람**  
**피부관리**  
 기미·주근깨·여드름·신부 맞사지  
 서명숙(소피아)  
 ☎ 82-6089  
 (판통로 코오롱스포츠원 2층)

□ 개업  
 동양화 매매  
 고급 표구 일체  
**전주화랑**  
 각종·작품 주문 제작  
 심화·병풍·액자·족자  
 위치 : 경천국앞, 대한생명위  
 한택현(마르켈리노)  
 전화 85-2220

# 교 구 소 식

1. 사회복지 후원회(사랑의 다리) 월례회 미사 : 일시-12월 7일 오전 10시30분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관
2.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기도회 및 비디오방영·사전전 : 12월 7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동산천주교회
3. 꾸르실로 신청 마감 : 남성 27차-12월 15일(기한연수, 빠짐없는 기록바람)  
교육 예고 : 남성 27차(1월 7일<목>~10일<일>), 남성 28차(1월 28일<목>~31일<일>)  
여성 24차(1월 21일<목>~24일<일>), 여성 25차(2월 4일<목>~7일<일>)
4. 군중후원회 12월중 월례미사 : 12월 7일<월> 오후 7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5. 소년 이리·의산지구 성실하신 동정녀 꾸리아 피절  
일시-12월 12일~13일까지, 천호 피정의집(12일 오후 2시50분까지 창인동 집결)  
준비물-미사도구·세면도구, 대상-각 단원과 간부
6. 테클라 모임 : 오늘 오후 2시, 장소-성바오로서원 2층  
대상-수도 성소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여성

## ✿ 잡 관

### □ 꾸르실로 운동의 개념

꾸르실로(Cursillo)라는 낱말은 스페인어로서, 그 원형은 꾸르소(Curso)이며 영어로는 짧은 코스(a little course)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공부를 시키는 단기 강습회”라는 뜻이다.

이를 교회적인 의미로 새겨본다면 “식어가는 크리스찬 생활을 불타게 만드는 단기 강습회”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꾸르실로 운동은 “참된 크리스찬 생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 꾸르실로 운동의 역사

1949년 스페인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인 1967년에 한국에 도입되었다. 우리 교구에서는 1969년 1월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남성 교육 26차(사제 61명을 포함한 1,115명 수료), 여성 교육 23차(수녀 53명을 포함한 1,118명 수료)로 2,233명의 꾸르실리스타를 배출했다.

### □ 교육계획과 수강신청

내년에는 6차에 걸치는 교육이 있을 예정인데 1월에 3차, 2월에 1차, 8월에 2차가 있다. 우선 1월과 2월중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2월 15일까지(남성 27차만)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강자격은 영세한 지 3년이 지나고 전진을 받은 자로서, 3학4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강과,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학력(고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병답자나 본당에서 일치를 깨뜨리는 자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본당의 꾸르실로 책임자(울프레야 간사)와 상의한 뒤, 본당 주임신부님의 추천이 따르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희망자가 넘침으로 신청서를 성실하게 기재해야 하고, 마감일자를 꼭 지켜야 한다. (3면 교구소식 참조)

## 요심이 (748) 김병오



### □ 1분명상

영혼을 성화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성 보나벤투라

명동피부과의원

전북 의료조합 지정

###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스렌즈

원장 : 전문의 마기환

한남희(비리시다)

오거리 한일은행

진너편 2층

☎ 85-2203

##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의 (크리스티나)

이 승 렬(엘리아)

☎ 전주 84-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골목

각종 선물용 동양화 소품

수석, 장식용품 미니화랑

## 아프리에 지 당

강 요섭(지당) · 한 크리스시아(순례)

전주 중앙(시장)상가 1층 273호

상행 에스컬레이터 좌측편

자택 전화 6-1075번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5-1712 사목회장 임의도

- ☆ 금주부터는 판공판계로 구역미사가 없습니다
1. 성체회 성체조배: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2. 판공면담 및 설사: 9일(수)-경원·고사·서노, 10일(목)-인후·중노, 11일(금)-진북·태평, 12일(토)-기타·학생, 13일(일)-직장인·기타
(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7시30분부터)
3. 평일미사: 내일부터 사제관 지하 소성당에서 합니다
4. 모임: 사목회-오늘 3시
자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오월의 마돈나 꼬미씨움-다음주일 오후 2시
5.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만5~6세
빠른 시일 안으로 접수해 주세요(문의 5-1712)
6. 중등부 교리교사를 구합니다
7. 감사: 지하 소성당을 꾸미는데 도움주신 분들께
□ 지난주 봉헌금: 1,047,150원 교무금: 1,180,5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861

-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차주는 친교주간
반장년 회의-차주 공식미사 후(수녀원 3층 회의실)
3. 차주는 자선의날: 불우한 이웃돕기 특별헌금 있음
4. 금암회 정기총회: 13일 공식미사 후
5. 모니카회 월례회: 17일 오전 10시
6. 12월 형제회: 17일 저녁 8시
7. 판공설사 안내: 21일(1반~25반), 22일(26반~50반)
23일(51반~63반)
8. 감사시간: 오후 2시~5시30분, 저녁 7시~10시까지
감사: 신축헌금(박귀식-5천원, 조순주-2만원, 강희복-1만원)
9. 금주복사: 윤기환·최장수 차주: 이배용·장유진
10. 금주봉헌: 박만수 부부 차주: 김형배 부부
11. 미사안내: 예언자의 모후pr 차주: 능하신 동정녀pr
□ 지난주 봉헌금: 557,590원 교무금: 901,000원
신축헌금: 35,0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김낙현
수·유 72-1222

- ☆ 오늘은 대림 2주일·인권주일입니다
1. 사목회: 공식미사 후(사목회의실)
2. 오세희: 공식미사 후(2층 회의실)
3. 판주사태 비디오판영: 오늘 공식미사후, 저녁미사후
4. 진북유치원 원아모집: 15일부터 모집합니다
※ 신자 아동들은 진북유치원으로
5. 성탄판공 면접일정: 8일~12일까지, 오전 10시~12시30분, 8일(덕진1~6반), 9일(덕진 7~11반), 10일(덕진 12~16반), 11일(덕진 17~23반), 12일(팔복 1~5반)
6. 미사시간 변경: 7일부터 새벽미사-6시, 저녁-7시
7. 청년연합회 정기총회: 20일 저녁미사 후
8. 성탄전야제 행사: 단체별 장기자랑 사무실에 접수
9. 금주 분당침소
지혜로우신 어머니pr-12일 오후 1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644,210원 교무금: 990,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 ☆ 오늘(6일)과 다음주(13일)는 공명선거 기원미사
☆ 나라를 위한 9일기도: 8일(성모 원죄없으신 잉태축일)~16일(선거 당일) 저녁 7시30분 미사, 8시-판공의거 비디오판영
이방의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 10주 수오성서: 아홉번째, 주제-재판받으시는 예수
1. 신부님 2차 가정방문 일정: 8일-동산 6구역, 9일-오전 회전-오후 원동, 10일-동산 1·2·3구역, 11일-팔복 1·4구역·원반월·기타
2. 새예비자 입교식: 17일 오후 7시30분(인도하세요)
3. 판공설사 일정: 15일-동산 전지역, 16일-팔복 전 지역·농원, 17일-원동·성덕·회전·원반월·기타,

- 18일-내동, 19일-학생
4. 구역미사·모임: 12월은 쉽니다
5. 모임: 애령회-오늘 공식미사후, 요새회·동명회-12일 오후 6시, 안나회·글라리아-차주 공식미사후, 울드레아 회의-14일 오후 7시30분
6. 침소: 매피의 모후 방문: 바다의 별
7. 금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조용기 ②김영원
차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최연조 ②김순오
8. 신축헌금 11월30일까지 납입액: 12,780,050원(125세대), 11월 30일까지 납입액: 9,854,050원
□ 지난주 봉헌금: 266,215원 수오성서헌금: 34,770원
교무금: 254,00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목회장 소병을

- ☆ 오늘은 인권주일: 부정선거 추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사목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탄성기연습: 매주(수·토) 저녁미사 후
3. 반미사 일정: 장소는 반장님께 문의
1반-8일 오전 10시30분, 2반-8일 오후 7시30분3·4반-9일 오전 10시30분, 5·6반-10일 오후 7시30분
※ 반미사 후 교역정리와 교무금 신일
4. 미사시간 변경: 12월부터 저녁미사 7시
※ 반미사 있는 날은 분당미사 없음
5. 중·고생 전미사: 토요일 오후 5시(학생들 참여바람)
6. 제단체는 1988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7. 성탄세례반 특별교리: 16일~19일 오후 7시30분
8. 김시합니다: 성모상(실내) 오영·한춘자 부부
은인 구할: 성광(성체장복과 성체현시 때 사용)
9. 금주전례: 해설-이진창·김광자
독서-김은식·이정숙, 기도-김청곤·최복순
차주전례: 해설-심상기·서복자
독서-박찬규·이정숙, 기도-김용수·박희순
□ 지난주 봉헌금: 230,770원 교무금: 133,000원

(숲정리)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공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 나라를 위한 9일기도: 8일~16일
1. 오늘: 사목회의회 총회(각팀, 단제장)
푸른숲·성모회-공식미사 후
2. 8일: 자모회 총회-오전 10시
3. 9일: 중·3수험생을 위한 미사-오후 7시
4. 10일: 영세예정자 면담-오후 8시
5. 다음주: ①각단체 예산안 편성 마감일
②전신자 피정 신청마감일 ③영세예정자 피정
④울드레아-공식미사 후
6. 판매: 개량메주(소두 한말)-13,000원
고추장 메주가루-4,000원
7. 불우이웃을 위한 복권판매: 중·고등부
8. 금주 분당침소: 화-평화의 모후, 토-애덕의 모후
9. 미사안내: 중·겨울의 모후
10. 금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기도-이귀례·김영주
봉헌-기도-임상영·조기순
차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기도-나병열·조현자
봉헌-기도-임창수·권정희
□ 지난주 봉헌금: 429,900원 교무금: 906,0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홍복
사무실 76-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사목회 월례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2. 가을 판공설사 설사표를 가지고 성사보시기 바람
3. 가을 판공설사 시험문제(성경) 가져가세요
4. 성전신축금은 신일하고 납부하세요
5. 밀린봉헌금은 판공시까지 납부하세요
6. 성탄영세식: 20일 오후 2시, 대부분 모시고 오세요
7. 판공설사: 21일~23일
8. 젤마회 총회: 10일 어머니미사 후, 참석바랍니다
9. 12월 성당침소: 매주 월요일-공경하을 동정녀
10. 성탄성기연습: 많은 참여와 협조바람
11. 금주전례: 해설-진건자, 독서-기도-박동철·이순자
봉헌-김진영 부부, 안내-김병문·안남근
차주전례: 해설-이순영, 독서-기도-김병선·조영숙
봉헌-김환창 부부, 안내-이진호·이완
□ 지난주 봉헌금: 453,570원